

시원한 음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음료 인기

카푸치노·후르츠 블라스트 종류도 다양
풍부한 맛의 셰이크·상큼한 맛의 스무디
초가을엔 따뜻한 그린티·차이 라떼 출시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www.baskinrobbins.co.kr)가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과일과 커피에 아이스크림을 더한 인기 메뉴 '블라스트'를 비롯해 '셰이크', '스무디' 등 다양한 콜드 음료 라인업을 내놓았다.

●커피와 아이스크림의 환상적인 조화 '블라스트'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콜드 음료는 '블라스트'다. 과일과 커피에 시원한 얼음과 아이스크림을 더해 진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카푸치노 블라스트'는 100% 아라비카산 커피의 깊고 진한 맛에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혼합되어 커피의 맛과 향을 부드럽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카푸치노 블라스트는 오리지널, 모카, 카라멜 등 3종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킨다.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청포도, 딸기, 키위 등의 상식한 과일이 어우러진 음료 '후르츠 블라스트'도 인기 메뉴. 포도알이 아삭아삭 씹히고 싱그러운 청포도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청포도 블라스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진한 녹차 아이스크림으로 즐기는 '그린티 블라스트'와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과 달콤한 연유가 어우러진 '쿠키앤크림 블라스트'도 있다.

●입맛대로 즐기는 '셰이크&스무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는 '오리지널 셰이크'도 눈길을 끈다. 평소 즐겨먹는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르면, 우유를 넣어 더욱 맛이 풍부해진 프리미엄 셰이크로 즐길 수 있다. 스무디 메뉴도 인기다. 부드럽고 상큼한 맛을 더해



'블라스트'는 과일과 커피에 아이스크림이 더해진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콜드 음료다. 상식하고 다양한 과일의 맛과 100% 아라비카산 커피의 진한 풍미를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제공 | 배스킨라빈스

요거트 본연의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리얼 요거트 스무디'는 물론이고 망고, 베리 등의 풍부한 과일 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망고 요거트 스무디'와 '베리 요거트 스무디'도 상큼함 가득한 메뉴로 사랑받고 있다.

초가을에는 따뜻하게 즐기는 '그린티 라떼'와 '차이 라떼'를 출시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라떼 메뉴에도 배스킨라

빈스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 더욱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카푸치노 블라스트와 오리지널 셰이크는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음료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료를 선보여 고객의 기호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별그대’ 김수현 보자! 잠실별 들썩

29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별그대’ 콘서트
해의 팬 2만여 명 포함 총 4만 명 운집 예상
한류스타 김수현·박해진 팬들과 토크쇼도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스타 김수현을 보기 위해 19개국에서 온 2만여 해외 팬을 포함한 4만 명이 잠실에 모인다.

29일 밤 8시부터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별그대’ 콘서트가 열린다. 롯데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기획한 이번 공연은 올해 한국은 물론이고 중화권과 동남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드라마 ‘별그대’의 국내외 팬들이 참여하는 테마 콘서트다. 그동안 롯데면세점이 매년 고객 대상으로 열린 패밀리 콘서트를 올리는 관광공사가 후원을 맡아 방향상품과 연계한 공연 콘텐츠로 발전시켰다.

‘별그대’ 콘서트에는 주인공 김수현과 박해진이 출연해 해외에서 온 팬들을 위해 토크쇼를 펼친다. 드라마 OST에 참여한 가수 린, 윤하가 무대에 나서 주제곡을 부른다. 콘서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 일어 통역 및 영어 자막 서비스를 한다.

공연이 열리는 올림픽주경기장의 수용인원은 4만명으로 티켓은 해외 팬과 국내 팬 각 2만장씩 배정됐다. 해외팬의 경우 여행상품 일정에 ‘롯데면세점’ 방문이 포함된 단체관광객 및 롯데면세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개별 관광객에 한해 무료로 배정됐다.

관광공사는 이번에 19개국 30개 해외지사를 활용해 ‘별그대’ 콘서트 관람 방향상품

을 개발해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 모객을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 유진호 마케팅전략팀장은 “중화권과 동남아 국가 외에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도 이번 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특히 한국 드라마와 콘텐츠를 좋아하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많은 국가의 호응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행사당일 주경기장에는 한국관광 관련 안내부스를 운영해 콘서트 참석 관광객들에게 한국관광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방영한 드라마 ‘별그대’는 중국을 중심으로 ‘치맥’ 열풍을 일으키고 ‘남산N타워’, ‘쁘띠 프랑스’와 같은 드라마 촬영지를 새로운 방문 관광명소로 만드는 등 한류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29일 밤 8시 올림픽주경기장서 열리는 ‘별그대’ 콘서트의 김수현(오른쪽)·박해진



한국에 ‘워킹데드’ 출몰…에버랜드 할로윈 축제

내달 5일부터 ‘할로윈&호러나이트’ 축제
‘워킹데드 시즌5’ 공동프로모션 행사 진행

테마파크 에버랜드는 9월5일부터 11월2일까지 가을축제 ‘할로윈 & 호러나이트(이하 할로윈 축제)’를 진행한다. 올해 할로윈 축제의 테마는 요즘 공포·액션 영화의 인기 아이템인 ‘좀비’.

9월5일부터 매일 저녁 ‘워킹데드 스캐어’에서는 경찰, 군인, 여고생 등 다양한 복장의 좀비들이 갑자기 등장해 플래시몹을 펼치고 방문객들과 포토타임을 갖는다. 특히 좀비를 소재로 한 인기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 시즌5’와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해 실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똑같은 모습의 좀비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7월 먼저 문을 연 공포체험 어트랙션 ‘호러메이즈2’에 이어 ‘호러메이즈1’도 9월5일 오픈한다. 맹수들이 사는 사파리 월드도 9월5일부터 ‘호러 사파리’로 변신한다. 밤이 되면 좀비들이 사파리를 장악한다는



가을축제 ‘할로윈 & 호러나이트’의 퍼레이드가 열리는 ‘할로윈 호러 빌리지’ 사진제공 | 에버랜드

설정으로 사파리 버스 내외부에 좀비들이 등장한다.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방문객을 위해 포시즌스 가든에서는 가을을 대표하는 1000만여 송이의 국화와 역사화를 1000여 개의 호박과 함께 전시한다. 이곳에서는 130kg이 넘는 초대형 자이언트 호박과 호박마차, 익살스런 ‘잭오랜턴(호박속을 파내 만든 등)’ 등을 볼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이번 추석에 복권 대박 빌어볼까 당첨금 20억 ‘스피드2000’ 출시

추석을 앞두고 대박복권이 등장해 화제다. 주인공은 즉석복권 ‘스피드2000’이다. 동전으로 끊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스크래치 방식으로, 1등 복권 4매를 무작위로 발매했던 기존과 달리 2매를 한 세트로 만들어 당첨금을 2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당첨복권 2매를 한 세트로 구매해 1등에 당첨되면

매당 10억씩, 최대 20억원의 행운을 얻을 수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1등 평균 당첨금은 18억원. 스피드2000을 연속 구매해 당첨되면 로또보다 약 2억원 가량 더 큰 당첨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첨확률도 약 500만분의 1로 로또복권 1등 당첨 확률 815만분의 1보다 1.5배가량 높다. 스피드2000 16회차는 한 장에 5개임, 2개임을 즐길 수 있는 복권 2종으로만 전국 복권판매점 및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다. 발매 일주일 만에 2등(1억원) 당첨자가 이미 탄생하는 등 관심이 높다.

김영근 기자

폭스바겐-태그호이어, 모터스포츠 파트너십

세계적인 시계 및 아이웨어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국제자동차연맹(FIA) 월드랠리챔피언십(World Rally Championship, WRC)에 참가하고 있는 폭스바겐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스테판 린더 태그호이어 CEO는 “그 어떤 모터스포츠 이벤트보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월드랠리챔피언십에서 두 브랜드의 만남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모터스포츠팀은 지난해 WRC에 처음 출전해 제조사 부문과 드라이버, 보조 드라이버까지 3개 트로피를 거머쥐며 시즌 챔피언에 오른바 있다. 4개의 랠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번 시즌에도 현재 드라이버 및 보조 드라이버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푸조 508 LUX Pack’ 국내 50대 한정 출시

한불모터스(주)는 ‘푸조 508 1.6 e-Hdi Lux Pack’ 모델을 국내 시장에 50대 한정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푸조 508 Lux Pack’은 기존 508악티브에 오리지널 가죽시트와 제논 헤드램프를 추가한 것이 특징. 1.6 e-HDi 엔진이 장착돼 508 라인 중 최고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푸조 508의 강점 중 하나인 높은 연비(18.4km/L)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푸조 508 Lux Pack’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2년 주유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격은 기존 508 악티브보다 100만원 오른 4290만원(VAT 포함)이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남들과 똑같은 건강검진? 내 몸은 남들과 안 똑같다

■ 나이·가족력 따른 맞춤 건강검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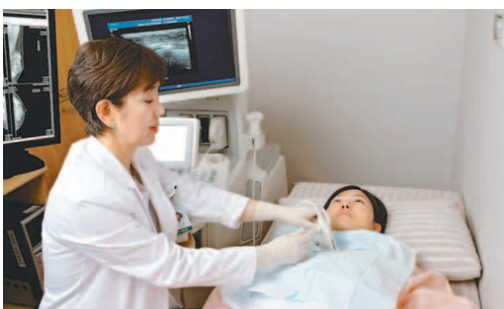
성장기부터 성인병 대비 건강 관리 꾸준히
직장인들 기본 검진만으로 안심하면 안돼
특히 50세 이후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필수

건강검진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만으로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각종 암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검진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질병 위험이 있는 질환과 가족력이 있을 경우 특화된 맞춤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통증이 생긴 후 병원을 찾으면 병이 심각한 단계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10·20대=비만·콜레스테롤·혈액 검사 필요

성장기 청소년이나 20대는 대부분 나이만 믿고 자신의 건강을 자신한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식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인병에 대비해야 한다.

20대부터는 혈액검사, 대변검사, 흉부 X선 검



정기 검진만으로 사망위험을 35%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행복한 삶의 기본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프로그램에 무작정 따르기 보다는 본인의 나이와 가족력을 살펴서 특화된 맞춤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스포츠동아IDB

사 등 기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매달 유방암 자가 진단이 필요하다. 또 입학, 취업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음주량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간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간염 항체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이 되면 최소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기본 검진 외 증상이나 가족력에 따라 추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30·40대=성인병 주의…심혈관계 질환·암 검사

30, 40대는 과다한 업무, 잦은 음주, 과다한 육류 섭취, 적은 운동량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흡연율과 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노화가 진행되는 40대는 심혈관계 질환과 암에 대한 정기검사가 중요하다. 특히 가족 중 암 병력이 있다면 암 검진은 필수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40대 여성은 매달 자가 검진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때 가슴적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50·60대=장기별 특화 검사 및 대장 내시경 필요

흡연자나 과체중자는 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 장기, 심장, 호흡기 특화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서구식 식생활로 대장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만 50세를 기점으로 대장암으로 변형되기 쉬운 용종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대변 검사와 별도로 최소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민병원의 김종민 원장은 “한국인 사망의 주된 원인인 악성종양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내달부터 4대 보험료 카드 납부 가능

9월부터 신용카드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 원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시설과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한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연금금은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대체하는 안도 포함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에 상한금액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규정 대신 의약품에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 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